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8/1일부터 EU와 멕시코에 30% 관세 부과 통보, 캐나다에는 35%
 - 미국 6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강화 예상. 금리 전망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 BofA, 미국 주가는 8월 말까지 상승. Goldman Sachs는 아시아 주가 전망 상향
 - EU,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 필요 시 역내 이익 보호 조치 시행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트럼프 관세 협상 관련 기대 및 우려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3%], 달러화 강세[+0.7%], 금리 상승[+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무역 갈등 재점화 가능성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對美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으로 1.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트럼프 관세 유예 기한 연장, 저가 매수 유입 등이 원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8%, 2.0%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관세정책의 인플레이션 영향 우려 등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2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1.0% 상승, 한국 CDS 약보합

		7/11일	7/4일	전주말대비			7/11일	7/4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259.8	휴장	-0.31%	국채 금리 10y	미국	4.41%	휴장	+6bp
	유럽	547.34	541.13	+1.15%		독일	2.73%	2.61%	+12bp
	중국	3,510.2	3,472.3	+1.09%		영국	4.62%	4.55%	+7bp
	일본	39,570	39,811	-0.61%	CDS 5y	한국	26bp	26bp	-0bp
	한국	3,175.8	3,054.3	+3.98%		중국	47bp	48bp	-1bp
환율	달러지수	97.85	97.18	+0.69%	위험 지표	EMBI+	358	휴장	+4bp
	유로화	1.1689	1.1778	-0.76%		VIX	16.40	17.48	-6.18%
	엔화	147.43	144.47	-2.01%		WTI유	68.45	휴장	+2.16%
	위안화	7.1701	7.1656	-0.06%	원자재	구리	556.2	휴장	+9.12%
	원화	1,375.8	1,362.5	-0.97%		금	3,355.6	3,337.2	+0.5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8/1일부터 EU와 멕시코에 30% 관세 부과 통보. 캐나다에는 35%

- 트럼프 대통령은 8/1일부터 EU와 멕시코에 3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게시. 이는 이전(EU 20%, 멕시코 25%) 대비 각각 10%p, 5%p 상향 조정된 것이며, 서한에서 무역적자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
- EU의 경우 핵심 쟁점인 자동차, 농산물, 관세율, 비관세 무역장벽 등과 관련하여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 멕시코에 대해서는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반입 문제를 거론하며, 관련 문제가 해결되면 관세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
- 캐나다에 대해서는 8/1일부터 35%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통보. 이는 이전(25%) 대비 10%p 높은 수준이며, 펜타닐을 이유로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캐나다가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고 지적.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교역국은 15~20%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
- 백악관의 해시 국가경제위원장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최근 발표된 관세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 한편,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발표된 관세가 모두 적용되면, 미국의 실효관세율은 20%를 넘어 1900년대 초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6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세 강화 예상. 금리 전망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 15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전월비 높아질 전망(각각 2.4%→2.6%, 0.1%→0.3%). 이는 기업이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의 소비자 이전을 점차 확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그러나 CPI 결정에서 비중이 높은 서비스 부문의 경우 관세 영향이 아직 크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시장에서는 6월 CPI 결과가 예상에 부합해도 기존 금리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
- 16일에는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 연간 상승률은 둔화(2.6%→2.5%)되나, 월간 상승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0.1%→0.2%). 이 또한 상품 부문에서 비용 증가의 소비자 이전이 좀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

■ BofA, 미국 주가는 8월 말까지 상승. Goldman Sachs는 아시아 주가 전망 상향

- BofA의 마이클 하트넷 스트래티지스트는 8월말 잭슨홀 미팅까지 AI 기대, 양호한 2/4분기 기업실적, 트럼프의 'TACO(트럼프는 항상 두려워 물러선다)'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 다만 이후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 Goldman Sachs는 MSCI 아시아태평양지수의 12개월 목표치를 3%p 높은 700으로 상향. 연준의 금리인하와 달러화 약세 전망 등을 주요 배경으로 거론

■ EU,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 필요 시 역내 이익 보호 조치 시행

- 관세 서한이 공개된 이후 EU의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8/1일까지 합의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동시에 필요 시 비례적 대응 등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첨언. 캐나다 카니 총리 또한 자국 기업과 근로자를 지켜낼 것이지만, 미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
-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30% 상호관세 부과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자국의 핵심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 이에 EU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가 발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중국 상하이시 정부,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전략 대응 회의 개최

- 상하이시의 규제 당국은 관계 정부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회의를 개최. 일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된 중국에서 이러한 회의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뚜렷한 변화의 신호라고 평가
- 다만 이날 회의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이 금융통제의 어려움 등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의 활성화와 같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 반면 기업들은 계속해서 위안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

■ 비트코인 가격, 2일 만에 다시 신고가. 금주 3개의 가상자산 법안 통과 기대가 반영

- 비트코인 가격(코인베이스 기준)이 11.9만달러 돌파. 이번 주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 3개의 친가상자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 등이 영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14일 현지시각 기준)

- ECB 치폴로네 이사 발언, 중국 6월 수출입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2/4분기 기업실적, 주가 상승세 지속 여부의 시험대가 될 전망 - WSJ

(Earnings Season Poses New Test for Stock-Market Records)

-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도 S&P500지수는 올해 6.4%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이러한 가운데 2/4분기 실적을 통해 관세의 실질적 영향이 확인 가능할 전망. 2/4분기 이익 증가율은 4.8%로 전기(13%) 대비 급감할 것으로 보이며, S&P500지수의 주가수익비율은 22.4배로 10년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존
- 이에 투자자들은 주가 고평가 논란 속에서 관세가 기업 이익과 소비자 부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영진의 설명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 또한 하반기 관세에 따른 수익성 약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 반면 일부에서는 빅테크 중심의 AI 대규모 투자가 수익성을 높여 주가 부담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 피력

■ TACO 악화 가능성, 또 다른 트럼프發 시장 충격 초래할 소지 - Financial Times

(Donald Trump could trigger another market shock, investors warn)

- 사상 최고 수준의 미국 주가가 트럼프 정책의 위험을 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이는 재정 안정을 위협하는 정책도 TACO가 반복되며 철회될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가 반영(JPMorgan).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다소 높은 수준의 관세율과 타코 기대 축소만으로 시장 위험은 재차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고(PGIM)
- 아울러 트럼프의 파월 압박에 따른 연준 독립성 훼손, 재정 우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조성 가능성도 존재. 또한 최근 트럼프와 로펌·언론·대학 등과의 갈등이 법치주의 및 정치적 문제를 자극한다는 점도 우려의 원인으로 작용

■ 중국 당국의 가격경쟁 종료 시도, 민간비중 확대 등이 장애물로 작용 - 블룸버그

(Xi Wants to End China's Price Wars. But 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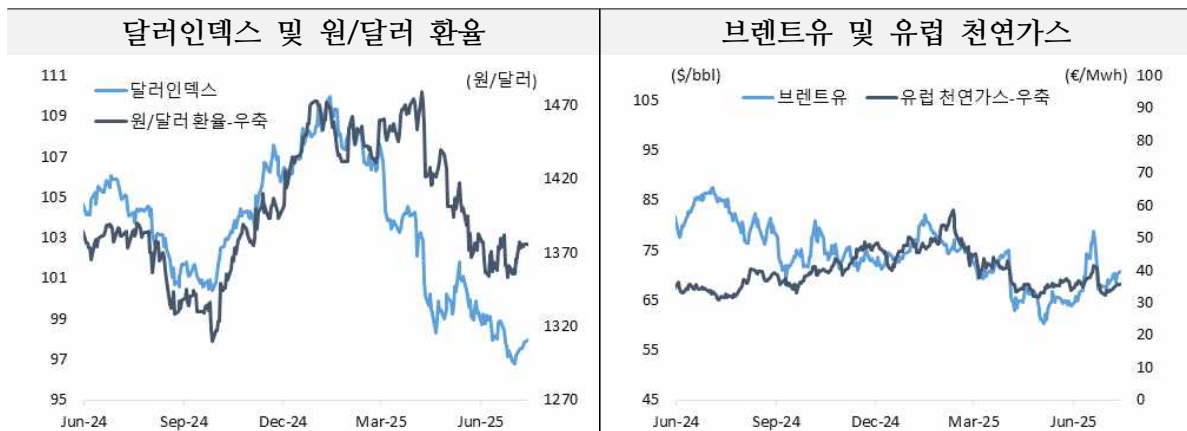
- 극심한 가격경쟁 등으로 디플레이션 심화, 산업이익 감소 등이 발생. 이에 시진핑 주석이 경쟁 억제를 시도하지만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은 상황. 가격전쟁의 중심인 태양광·배터리·자동차 산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해 정부의 직접 통제가 어렵기 때문
-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기업 유치에 산업 구조조정 지연, 과잉 생산, 가격 하락 심화 등을 초래. 소비 부진도 문제. 이에 당국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생산량 감축 유도,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기업 유치 제한, 소비 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정책 등 다양한 대응책 추진에 나설 필요

- **연준의 통화정책, 트럼프 압박에도 불확실성 등으로 당분간 금리 동결 예상 - 블룸버그**
(Three reasons the Fed will stand pat on interest rates)
 -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에도 연준은 다음의 이유로 당분간 기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첫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 특히 대상국, 상품, 세율, 근거, 시기 등이 계속 변경. 둘째, 현재까지 관세의 노동시장 및 인플레이션 영향이 제한적. 이에 관련 리스크의 정확한 판단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
 - 셋째, 기존 통화정책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 주가 상승과 달러화 약세로 완화적 금융여건이 조성. 트럼프의 압박과 보우만-윌러 이사의 금리인하 지지에도 파월 의장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 연준이 압력에 굴복할 경우 독립성 우려가 커지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높일 가능성
- **미국 2/4분기 기업실적 전망, 개별 예상치의 큰 편차가 변동성 확대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Welcome to Your Conviction-Light Stock Rally)
- **미국 트럼프의 중국 의존도 축소, 대안 부재 등으로 현실화 가능성 낮은 편 - 블룸버그**
(America Can't Seem to Shake Reliance on China as Factory Floor)
- **미국 트럼프의 구리 관세, 정치적 이유 등으로 TACO는 기대난 - Financial Times**
(Why copper tariffs are different)
-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 트럼프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 등으로 약화 예상 - 블룸버그**
(Oil Market's Focus Shifts to Demand as Trump Reignites Trade War)
- **아시아 신흥국 채권 급부상, 선진국 재정적자 우려의 반사 이익 등이 영향 - 블룸버그**
(Fiscal Deficit Fears Give a Surprising Boost to Asian EM Bo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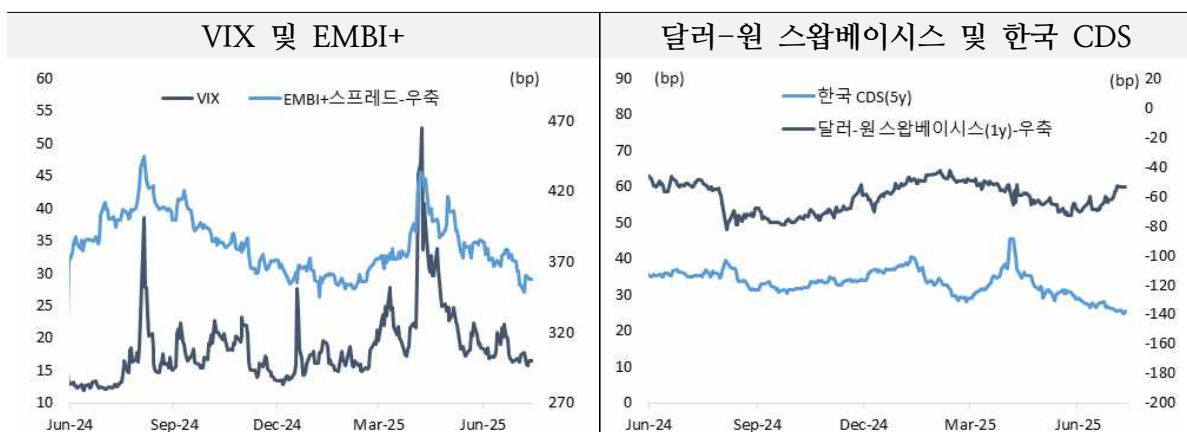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